

# 정녕 'AI푸어'가 되려는가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디지털 푸어’처럼 AI(인공지능)도 ‘AI푸어’를 만들 수 있다” 재벌 회장중 AI에 가장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한 방송사 대담프로그램에서 한 말이다.

디지털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디지털 푸어’로 구분했듯이 AI도 이를 잘 활용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차별적 효과를 얻는 사람과 오히려 희생되고 사회적으로 낙오되는 형태의 사람들이 생기는 ‘AI디바이드(격차)’가 생길 것이라 말한다.

비단 사람 생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사의 주요 기술들은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에 뒤처진 집단과 나라는 어김없이 쇠퇴하거나 지배를 당했고 많은 경우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기술혁명의 관점에서 AI는 인류생활의 변화나 경제적 진보 뿐만 아니라 미래 지구촌의 헤게모니를 바꿀놓을 거대한 트리

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의 보편화가 가져온 현대사회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 관측이다. 최태원 회장은 AI 디바이드, AI푸어가 사람 개개인에 적용되는 현상을 빚었지만 이는 지엽판단적인 것임을 암시했을 수 있다. AI 지배력을 가진 국가가 이를 갖지 못한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AI개발에 십수년전부터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현재 기술경쟁력에서는 중국이 다소 뒤처지만 특히 규모에서는 미국을 이미 압도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AI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0만2000건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최근 10년간 출원된 생성형AI 관련 특허도 전체 5만4000건중 중국이 70%선인 3만8210건으로 미국의 6200여건을 크게 앞섰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강점은 14억명의 인구와 방대한 시장, 탄탄한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인터넷검색 시스템 ‘만리방화벽’과 CCTV 대중감시시스템 ‘스카이넷’ 등을 운영하며 미국을 능가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중이다. 만약

중국의 저비용AI가 각국에 빠르게 확산된다면 AI주권은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서둘러 딥시크 R1에 차단경보를 내리고 있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기본법을 제정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관련법 입법국가가 됐다. 2027년까지 ‘AI3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청사진도 최근 냈다.

그러나 정부의 실행의지는 너무 빈약해 보인다. 올해 AI 관련 예산은 1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7%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번 회계연도 관련 예산 29조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동안 AI데이터센터에 5000억달러(720조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중국도 올해 예산의 0.68%인 1917억 위안(39조원)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배정했다. AI기술은 과거 어떤 기술혁명보다 파괴력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로만 ‘세계 3강’으로는 ‘AI식민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skc8472@metroseoul.co.kr

# 바빠 움직이는 지구촌... 잠잠한 韓



기지 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미국 정권교체 탓인지 지구촌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한반도 주변국 시계바늘도 바빠 돌아가는 느낌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주도의 관세전쟁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다. 이들 경제대국끼리 맞닥뜨리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 미국 대통령 만나 워싱턴 D.C.를 찾는다. 한국 대통령은 구치소와 현재를 오간다. 트럼프의 2기 취임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지만 씩씩한 기분은 떨쳐 내기가 어렵다.

지난 2023년 한국과 일본 경제성장률이 엇비슷해졌다는 소식은 언론사들이 떠들썩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당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파다했다. 다행히 우리가 연간 기준 추월은 허용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수치에서 종종 뒤지고 있다.

성장률에서 한국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 데다, 해당 2개 분기 연속으로 일본에 뒤처졌다. 2분기 한국 -0.2%(역성장), 일본 0.5%에 이어 3분기 한국 0.1%, 일본 0.3%로 집계됐다.

한국 GDP는 4분기에도 고작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분기에 0.2%만큼 줄었다가 3~4분기 다시 도합 0.2% 늘었으니 4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제자리걸음에 머문 것이다. 일본의 4분기 수치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줄곧 우리에 앞서 있다. 최근에도 작년 2분기 0.7%,

3분기 0.8%, 4분기 0.6% 등이다. 아직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중국도 아니고 일본·미국과 비교해 성장률이 앞지락뒤지락하거나 뒤지는 상황은 문제가 커 보인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고 일본은 경제규모가 우리의 갑절이 넘는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의 경우 2~4분기 3개 분기 성장률이 각각 0.8%(도합 2.4%)에 달했다.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캐나다도 같은 기간 0.5%, 0.3%, 0.4%를 기록했다.

국제무대 성적표가 참 초라하다. 12·3사태에 따른 사건들을 조기에 수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년 3분기만 봐도 한국 성장률은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평균인 0.5%에 못 미친다. 또 유로존국가 평균(0.4%)보다도 밑에 자리했다.

/kys@

오늘의 운세 2월 7일 (음 1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일을 마무리. 48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한다. 60년생 술자리에서 실수하게 된다. 72년생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여행이다. 84년생 겨울은 혼자서는 웃지도 울지도 않으니 지금이라도 미래대비를.
- 소** 37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자. 49년생 손풍에 뒤편에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가 되겠다. 61년생 좋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73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로 원망을 듣는다. 85년생 양다리를 접으니 왠지 마음은 편안하다.
- 호랑이** 38년생 산들바람이 부니 일이 잘 풀린다. 50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알도록. 62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74년생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성공이 눈앞에. 86년생 집으로 가는 길이 불편.
- 토끼** 39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51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 63년생 가족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75년생 걱정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87년생 모심으로 갈 때는 정황은 신야야 한다.
- 용** 40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52년생 조상님 말씀에 어불성설(語不成說)로 우기지 마라. 64년생 이끼가 끼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노력. 76년생 사랑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88년생 배우자가 월급을 나눠주니 고맙다.
- 뱀** 41년생 도박성 투자는 금물. 53년생 중요한 연락이 오니 우편물을 꼭 확인. 65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온다. 77년생 월요일 날 신장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아보자. 8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니.
- 말** 42년생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개척. 54년생 친구와 대립이 생기니 조심. 66년생 가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나 귀하게 여겨라. 78년생 관에서 장하금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공부하자. 90년생 저축으로 생활의 전환기를 가져보라.
- 양** 43년생 예습에 무용지물(無用之物)인 것은 거의 없으니 기획해보라. 55년생 거짓말 빼고 사랑도 배워가며 하는 것. 67년생 과민한 반응을 자제하자. 79년생 성과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91년생 여자직원과 의견충돌을 주의해야만.
- 원숭이** 44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견제를 받는다. 56년생 결모양만 화려한 것을 동경. 68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80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아보자. 92년생 조직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조직에 이롭다.
- 닭** 45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57년생 먹는 것 갖고 싸우나 돈 갖고 싸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69년생 온통 세상이 꽃동산이다. 81년생 꿈이 있다면 늙지 않는다. 93년생 남편 말에 언중유골(言中有骨)을 상세하도록.
- 개** 46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는 것이 순리이다. 58년생 길에도 양보가 있듯이 운전 때 차량 양보. 70년생 원하는 것에 대해 기도하도록. 82년생 자동차 타는 먼 여행을 금하고 천천히 행동. 94년생 친구 따라 도박판에 가는 일이 없도록.
- 돼지** 47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59년생 능력 부족으로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 아프다. 71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83년생 면접에서 떨어지면 차선책을 선택하자. 95년생 상식보다는 지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결과가 좋다.



## 김상회의四季

### 자식 걱정하는 부모와 취업운

경기 불황과 계속되는 취업난에 자식 걱정하는 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높다. 며칠 전 찾아온 모친도 딸이 취업을 못 해서 걱정이 많이라며 취업운을 궁금해했다. 딸은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전공이 문과 쪽이었다. 기자가 되고 싶다면 언론사 입사를 공부 중이라고 했다. 언론사는 채용하는 인원도 그리 많지 않고 언론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딸은 2년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자기 용돈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한다. 막막하기만 한데 딸 아이가 원하는 언론사에 취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입사가 조금 수월한 분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딸 사주를 보니 월주에 양인이 있고 일주에는 편관의 세력이 강했다. 양인은 고집이 강한 성향으로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추진력이 좋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넘치고 에너지가 강해서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아붓는 스타일이다. 기운이 강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쌓인 스트레스 역시 강해서 스스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폭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주의 편관 또한 기세가 강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강한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한다. 리더십이 뛰어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딸은 사주로 봐서는 타고난 성향에 잘 맞는 직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에 취업하면 능력을 발휘해서 업계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자질이 있다. 취업을 할 수 있었냐가 문제인데 운세를 보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조만간 분명히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운세가 들어온다. 걱정이 크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된다.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젊은이들이 쉽게 취업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4	9			5		
5	9	8						
	4			6	2		8	7
		1				2		8
7								4
2		3				4		
4	8		2	1				9
					6	8	2	
2			3	8			6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 할인도서

6	9	1	8	5	2	7	9	
9	2	8	9	7	1	2	6	5
5	6	9	2	1	2	9	8	7
1	2	7	6	8	9	5	9	2
2	5	9	2	6	8	1	2	
8	7	2	5	9	1	2	6	
2	1	5	7	2	8	6	5	9
9	9	2	1	6	7	2	5	8

2	9	9	2	6	1	5	2	8
2	5	1	8	9	2	7	6	9
9	6	5	2	7	8	2	1	9
2	8	9	9	5	2	6	1	7
6	2	7	1	9	9	8	5	2
1	7	8	9	2	5	2	9	6
5	1	2	6	7	9	8		
9	2	7	8	6	1	2	5	9
8	2	6	5	1	9	5	7	2